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6차]**



**2012. 2. 6.**

**등록금심의위원회**

##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년 2월 6일(월) 10:00 ~ 11:15
2. 장 소 : 부총장실 회의실(행정관 2층)
3. 참 석

구 분	인 원	성 명	비고
위 원	8명	유재원 (기획조정처장), 한진수(학생복지처장), 심경보 (예산기획팀장), 김명근 (세무사)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오창현 (등록금협의회 대표), 임진용 (등록금협의회 대표), 이수정 (등록금협의회 대표),	
간 사	2명	정우영(학생복지팀 과장), 최가영 (예산기획팀 직원)	

#### 4. 회의내용

유재원 위원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한다. 학생대표측의 등록금 인하율을 재고 요청에 대하여 학교 재정상황 및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본 결과 2.5%이상의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임진용 위원은 작년에 요구한 경영대학 교수충원에 대하여 질문하다.

유재원 위원은 작년에 1학기, 2학기 공고를 내어 지원을 받았으나, 경영대학의 교수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원자 중 우리 학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뽑지 못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경영대학 교수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수정 위원은 평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2012회계연도 예산안인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이 실제 행정 및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어떠한 투자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예·결산 차이 및 적립금 부당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대학재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다.

이해찬 위원은 기존에 등록금인하, 장학금확충, 입학금인하 3가지를 요청했었다고 말하며 입학금의 사용내역이나 인상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다.

